



SPECIAL FEATURE

디자인 마이애미 인 시추
DMZ OPEN 전시
청주공예비엔날레
세계서에전북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아트 시그널 부산

아트패트럴

지난 9월, 한국 미술계가 뜨겁게 불타올랐다. 거대한 동시대미술의 파고가 전국을 뒤덮었다. 제4회 키아프 & 프리즈 서울을 중심으로 방방곡곡 하이라이트 전시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Art는 그 축제의 열기가 남아있는 현장으로 특별한 ‘팔도유람’을 떠난다. 서울 경기 청주 전북 광주 목포 대구 부산의 베스트 행사를 소개한다. 먼저 글로벌 공예·디자인 아트페어 디자인마이애미는 아시아 첫 진출지로 서울을 선택했다. 제3회를 맞이한 경기 DMZ 오픈 페스티벌은 비무장 지대에서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발신한다. 〈아트 시그널, 부산〉은 아트투어의 형식으로 지역 미술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모색한다. 이 외에 공예, 서예, 디자인, 수목, 사진 등 장르적 정체성을 내세우며 동시대 미술담론을 선도하는 비엔날레까지... 각 행사를 이끈 주역과 편집부 기자가 생생한 리포트를 전한다. 다이내믹, 아트패트럴!

바다의 시그널, 아트 캐피탈의 꿈

/ 이현 편집장

2022년 프리즈의 서울 상륙 이후 한국 미술계에는 매년 뜨거운 가을 축제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트워크의 무대를 정말 ‘한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대부분의 이벤트가 서울에 편중된 지금, 한국 미술계는 곧 서울 미술제와 다른 말이 아니다. 9월 한 달간 진행된 <아트 시그널, 부산>은 미술축제 기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반가운 시도였다. <아트 시그널, 부산>을 이끈 주역은 아트페어 전문 기획사 아트미츠라이프(AML). 젊은 감각의 아트페어 ‘더프리뷰’를 출범한 팀으로도 유명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아트 시그널, 부산>은 전시, 네트워킹, 강연, 멘토링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됐다. 젊은 작가, 아트피플, 시민 등 참여층에 따라 맞춤형 아트투어를 제공했다. 총 네 가지 투어 프로그램이 8회 운영됐다. 먼저 ‘Art Exclusive’는 부산 VIP 갤러리 투어다. 수도권외의 컬렉터와 미술 애호가를 부산으로 초청해 주요 전시 공간을 탐방했다. 지역 미술기관 관계자와 미팅을 주선해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모색했다. ‘Studio Link’는 부산 아틀리에 투어다. 평소 방문하기 어려운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짜였다. 작가와 직접 교류하면서 예술세계의 이해를 심화하고, 이들의 미술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왼쪽 · 안규철 개인전 <열두 개의 질문> 전경 2025 국제갤러리 부산
아래 · 금고미술관에서 열린 <부산, 커넥티드>전의 HH(박현성, 황현덕) 작품작



- ① 부산 커넥티드
- ② 9. 9~27
- ③ 부산현대미술관, 금고미술관, 국제갤러리, 현대모터스튜디오 등 9곳
- ④ 아트미츠라이프(AML)



<부산, 커넥티드>전의 파편과 실(김보경, 희박) 작품작_<부산, 커넥티드>는 부산시 주최 신진 작가 아트쇼다. 공모로 선정된 10팀이 그룹전을 선보였다.

핫 플레이스 9, 관객 맞춤형 아트투어

다음으로 ‘Art & Ideas’는 시민 참여형 투어다.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명사 강연과 아트투어를 결합했다. 장동선 뇌과학자와 이소영 컬렉터가 강연자로 참여해 각각 과학과 예술의 관계, 작품 컬렉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Next Art, Busan’은 청년 아티스트 멘토링 투어다. 부산의 미술대학 재학생을 타깃으로 한 진로 탐색형 프로그램. 전시 공간과 창작 현장을 탐방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무 감각을 체득하도록 기획되었다. 작가, 기획자, 갤러리스트 등 현업에서 활동 중인 선배 예술인과 멘토링 자리를 마련해 청년 예술인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부산시가 주최한 신진 작가 공모전 <부산, 커넥티드>와 연계해 프로그램의 깊이와 넓이를 더했다.

<아트 시그널, 부산>이 대상으로 삼은 기관은 총 9곳이다. 부산현대미술관, 금고미술관, 국제갤러리 부산,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 F1963 도서관, 현대미술회관, 부산국제비디오아트페스티벌(BIVAF), 조은필 작가 스튜디오, 이미주 작가 스튜디오까지. 여기에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핫’한 전시 현장이 포함되어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더했다. 먼저 부산현대미술관에서는 최초의 추상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의 국내 첫 대규모 회고전 <힐마 아프 클린트: 적절한 소환>(7. 19~10. 26)을 만나볼 수 있다. 작가의 주요 연작을 중심으로 회화, 드로잉, 기록 자료 등 139점의 작품을 망라한다. 국제갤러리 부산에서는 중견 작가 안규철의 근작 개인전 <열두 개의 질문>(8. 22~10. 19)이 개최됐다. 1990년대 퍼포먼스 사진작업부터 ‘집’을 주제로 한 조각 연작, 이번에 처음 시도한 애니메이션 등을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현대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기획전 <Plastic: Remaking Our World>(8. 28~2026. 2. 22)가 열리고 있다. 과거에는 혁신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된 플라스틱의 양면성에 주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자인의 역할을 고찰한다.